43 전자제품 제조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양측 승모근의 근막 동통증후군, 만성경부염좌

성별 남 **나이** 38세 **직종** 전자제품 제조업 **업무관련성** 높음

1 개 요

근로자 최○○는 2006년 4월 30일 ○○전기(주)에 입사하여 2007년 7월 27일 까지 근무하였다. 2007년 7월 27일 뒷목 통증 및 양측 어깨 뒤쪽의 통증을 주소로 병원 방문하였고, 2007년 10월 30일 만성경추부염좌 및 양측 승모근 근막동통증후군이라는 소견을 받았다.

2 작업내용 및 환경

피재근로자 최〇〇가 수행한 작업은 PCB 기판 납땜, 검사 및 조립, 포장과인쇄 작업으로 구성되어 있다. 하루 전체작업시간은 460분이며 오전 오후 각10분씩 휴식이 있고 초과근무는 거의 없었다. 목을 굽힌 대표적인 작업은 납땜 및 조립작업으로 이에 대하여 ISO 11226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머리(목) 굽힘 각도 측정방법에 의해 정적인 작업을 분석한 결과는 모든 작업영역에서 수용가능으로 나왔으며, RULA 분석 시 목부위 점수는 3으로 위험도 50%, 전체적인 스코어는 3~4점으로 나왔다. 단 결과 해석에 있어 낱개 단위의 반복적인 납땜 및 조립 업무에서는 단위 정적자세 사이의 간격은 3-4초도 안되는데 이를 하나로 보지 않고 별개로 보기 때문에 수용가능의 결과로 해석된다는점과 어깨의 들림에 대한 부분은 평가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.

3 의학적 소견

최○○는 음주, 흡연은 하지 않았고 2007년 7월 27일 뒷목과 어깨의 통증으로 조퇴하여 ○○정형외과를 방문하기 이전에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한 기록이 없었다. 2007년 10월 30일 ○○정형외과에서 만성경부염좌및 양측 승모근 근막동통 증후군이라는 소견을 받았다. 2008년 9월 면담 시실시한 의학적 문진과 이학적 검사 상, 어깨와 목의 운동제한은 없었으며, 6, 7번 경추 양측 및 승모근 상부 양측의 가벼운 압통만을 보였으며 근막통증후군에서 볼 수 있는 근육에서의 단단한 띠 (taut band) 같은 변화를 촉지 할 수는 없었다. 주관적인 통증의 정도를 물어본 결과, 2007년 7월 27일 최초 진료시의 통증은 10점 척도로 물었을 때 그 당시는 10점이었다고 하였고, 면담시에는 평상시에도 가벼운 통증은 있으나, 일을 좀 심하게 하면 같은 부위에 5점 정도의 통증이 생긴다고 하였다.

4 | 결 론

근로자 최00는

- ① 2006년 4월 30일부터 2007년 7월 27일까지 ○○전기(주)에서 PCB기판 납 땜, 조립, 검사 및 포장, 인쇄 등의 작업을 하였으며, 목과 어깨의 통증으로 사직을 하여 만성경부염좌 및 양측 승모근 근막통 증후군으로 진단받았는데,
- ② 당시 진료 기록을 토대로 볼 때 위 상병 진단에 오류가 있다고 볼 근거 가 없으며,
- ③ 해당 질환이 근무시점 2년 내에 발생한 사실이 일반적인 근막동통증후군 발생 양상을 만족하고,
- ④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가 문헌 검토 상 해당 질환이 호발하는 직종들의 업무 자세와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어,

최〇〇의 위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.